

에도 시대의 쇼기

에도 시대에 들어서면 막부 내에 쇼기쇼(將棋所)가 창설되고, 쇼기사들은 사사봉행(寺社奉行)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또한 8 대 장군 요시무네 때에는 1 년에 한 번 장군 앞에서 쇼기를 두는 '오시로쇼기(御城將棋)'가 시작되어 막부 말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. 에도 시대에 쇼기는 일반 서민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되었으며, 그 모습은 당시의 니시키에(錦絵)나 키보시(黄表紙) 등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.